

# KT '대표 선임', SKT 'AI전문 사외이사', LGU+ '女 사내이사'

## 통신사·포털 등 IT기업 주총 돌입

KT, 윤경림 대표 선임 안건 상정  
SKT, 'AI 컴퍼니' 이사회 재구성  
LGU+,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네이버, 이사보수한도 축소 안건  
카카오, SM 인수 등 신사업 준비

이동통신사, 포털 등 주요 IT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주총에서 신규 대표를 선임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사업을 도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엔터기업 인수 후 신사업이나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정관 변경에 나선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대표이사 선임건이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 ◆통신사, 사내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의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는 주총을 통해 윤경림 사장, KT 대표 최종 후보



지난해 3월 25일 열린 SKT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영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SKT

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건을 진행한다. 하지만 윤경림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근 여론에서 윤 사장이 대표 후보에 오른 것에 대해 "구현도 KT 대표가 윤 사장을 자신의 아바타로 KT 대표이사로 출마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28일 서울 중구 SKT 타워 4층 수펙스홀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3명의 선임 건 등을 논의한다. SKT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오혜연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원장을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와 김준모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부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SKT 관계자는 "오혜연 사외이사 후보는 자연어 처리 기반 AI(인공지능) 전문가로 현재 KAIST 전산학부 교수이자 인공지능 연구원 원장 등을 겸하고 있다"며 "당사의 향후 AI 기술 방향성과 AI 윤리 문제 등에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우리 회사가 AI 컴퍼니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주총을 개최한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

진을 위한 부칙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는 공정위에서 승인한 3사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명희 LG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사내이사 및 윤성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염윤미 도서문화재단 씨앗 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도 다뤄진다.

### ◆카카오 SM 인수 준비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들은 이사 보수한도를 축소하는 안건과 카카오는 SM 인수를 위한 채비에 나서 투자·법률 전문가를 이사회에 임명시킨다.

네이버는 22일 경기도 성남 그린팩토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현재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카카오는 28일 제주도 본사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이사 보수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또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률을 3배

수로 정하고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5만 주를 부여하도록 한 안건도 상정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기 중인 이사가 주총 해임 결의로 퇴임한 경우,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경우, 직무 관련 벌금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제한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카카오는 또 정관 변경을 통한 사업 목적 추가와 배재현 투자총괄대표(CIO) 사내이사 신규 선임 등 안건을 상정한다. 특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정관에 추가하는데, 이는 SM엔터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배 CIO는 지금까지 카카오에서 큰 M&A를 담당해온 투자 전문가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법 전문가인 신진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를 신규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시키는 안건도 상정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KT 윤경림 대표 선임에 '찬성'

글래스루이스, 선임안 찬성 권고  
외국인 지분 44% 달해 영향 미칠 듯

외국인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이 KT의 윤경림 대표 후보에 대해 선임 '찬성' 의견을 내면서 KT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커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루이스는 오는 31일 열리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사장을 차기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함께 손꼽히는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각국의 연기금을 포함 1000여 곳의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갖고 있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T 주총에서 윤 대표가 정식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의결을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선임 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KT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여론의 강한 반대에 따라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 그룹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했다.

3대 주주인 신한은행도 여론의 반대 분위기에서 찬성표를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12%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총 7.79%, 신한은행은 5.4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기류 속에서 글래스루이스가 차기 대표 선임 '찬성' 의견을 냈에 따라 기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KT의 외국인 지분 비중은 44%로 이들이 글래스루이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소액주주들도 윤 대표 찬성 운

동에 나서 1% 이상 지분을 모았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래스루이스 관계자는 "후보자 명단을 검토한 결과,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주주들이 모든 후보자들 선임에 찬성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KT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부장, 송경민 KT SAT 대표를 사내이사로 내정했으며 사외이사 중 임기가 끝나는 강중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표현명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채윤정 기자



## 전세계 농심 법인에 차세대 시스템 구축

글로벌 통합 경영체계 고도화

SK(주) C&C가 전세계 농심 해외 법인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SK(주) C&C는 14일 농심 '해외법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SK(주) C&C는 농심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현장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진행한 '농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클라우드 기반 SAPS/4HANA ERP 시스템 구축을 포함, 전사 프로세스 재정립 및 영업(모바일 포함)을 비롯한 업무별 인터넷 시스템, SCM(공급망 관리), MDM(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재개발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SK(주) C&C는 농심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농심 해외법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는 S/4HANA ERP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본사 차세대 시스템에서 개발된 ▲BW/EIS(경영정보시스템) ▲MDM/PLM(제품기준정보관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해외법인 특화 시스템도 재개발해 농심 해외법인 시스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이번 ERP 시스템 구축과 본사 차세대 시스템 확대 적용을 통해 농심의 글로벌 통합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 현장의 디지털 활용 수준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포스코 "가족·출산친화제도, 업무몰입에 긍정적 효과"

### 기업시민·ESG 리닝랩 개최 그룹사 도입 위해 지원 검토

포스코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드러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포항 본사에서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주제로 기업시민·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닝랩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코는 2022년 2월부터 사회공헌, 탄소중립, 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 임직원들이 전문가의 강연을 듣고 대화와 토론으로 경영상의 개선 포인트를 도출하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시민·ESG 리닝랩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24개 회사의 기업시민·인사·노무분야 임직원들이 모인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포스코가 3월 10일 포항 본사에서 '기업시민·ESG리닝랩'을 개최했다.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를 주제로 포스코그룹 기업시민·인사·노무 임직원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조영태 교수가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포스코와 협력사의 가족·출산친화제도와 그간의 성과 등 지난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포스코의 가족·출산친화제도가 직원의 직무만족도와 업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와 같은 제도들이 다른 그룹사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는 "포스코는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후 기업이 사회공헌체 일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을 선정했다"며 "사내 복리후생 제도가 전

향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사회적 담론 형성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상당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20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등 직원들의 자녀 돌봄 지원 근무형태를 도입했으며, 2022년에는 200만원의 신혼여행지원금과 50만원 상당의 아기 첫만남 선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개설했으며, 협력사 직원 자녀들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도 조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